



## 진리를 살다

### 손 영성체 또는 입 영성체

신자 영성체의 본 형태는 처음부터 손 영성체였습니다. 9세기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하느님 선물로서의 성체를 신자들의 손바닥에 놓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몸에 대한 깊은 공경을 말해주는 아름다운 글귀가 기록된 문헌을 소개합니다. 4세기 말경 예루살렘의 주교 시릴로의 「신비 교리」의 내용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이 나아가면 왕을 모셔야 하는 오른손을 위해 왼손을 어좌로 만드십시오. ...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집어서 받으십시오. 덧붙여 아멘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런 다음 조심스레 거룩한 몸을 접촉함으로써 당신의 눈을 거룩하게 하여 이를 영하십시오. 그러나 그 몸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V, 21) 성체께 대한 점점 더 커져가는 경외심과 거룩한 두려움은 마침내 9세기에 와서 성체를 입으로 영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이 성체를 손으로 받은 다음 즉시 영하지 않고 집으로 모셔가서 미신 행위 등 부당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세기에 성체께 대한 외경심이 강조되면서 거룩한 성체를 부당한 손으로 영할 수 없다고 생각한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많은 나라에서는 다시금 손으로 받아 모시는 영성체를 허락하도록 요청하여 마침내 경신성성은 1969년 “주님의 기억(Memoriale Domini)”이라는 훈령을 통하여 영성체 방법을 그 나라 주교회의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사도좌로부터 확인을 거친

## 영성체

후 손으로 하는 영성체는 입으로 하는 영성체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양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땅한 경외심이 두 가지 영성체 방법에 자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지난 세기에 크게 자리했던 두려움과 과도한 죄의식 및 부당함을 강조한 의식들은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경외심이 없는 태도 또한 올바르지 못합니다. 영성체하는 사람의 태도와 몸짓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 영성체 횡수

매일 미사가 없던 초세기에는 영성체 횡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일부 신자들이 성체를 집어 모셔가 다른 날에도 영했기 때문에 미사 횡수보다 영성체 횡수가 오히려 많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단의 등장으로 영성체 횡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거의 성체를 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성체를 영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20세기에 와서 미사 중의 영성체를 정상화시켰지만 하루에 한 번 이상 영성체를 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오랜 관습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특별 축일이나 성사 미사가 아니더라도 미사에 온전히 참석하기만 하면 하루에 두 번까지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 917조)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한번 영성체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탁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더 갈 곳 없는 사람들

인간의  
추악함에,  
욕심에  
끝까지 물린  
사람들.

더는 갈 곳 없는  
이들이  
그 때에도,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지.

상화이야기

부모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존 에버렛 밀레(1829-1896)  
1849-50년 작  
캔버스 위 유화 86.4 X 139.7 cm  
테이트 미술관, 영국 런던

내릴 때 사용할 사다리를 상징하고, 사다리 위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앉아 있다. 요셉 성인의 오른쪽에 보이는 소년은, 양털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례자 요한이며, 세례를 상징하는 물이 담긴 용기를 들고 있다.

이 그림은 어린 아기 예수님께서, 목수인 아버지 요셉 성인의 작업실에 있는 모습을 그렸다. 요셉 성인은 테이블 위에 나무판을 올려놓고, 문을 만들고 있다. 어찌 된 연유인지 예수님은 튀어나온 못에 손이 찢리셨는데, 손에서 흐른 피가 발까지 흘러 후에 다가올 십자가형을 암시하고 있다. 안나 성인은 튀어나온 못을 도구로 빼고 있고 요셉 성인은 예수님 손의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들여다보고 계신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달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당신의 불에 입을 맞추기 위해 뺨을 내밀고 계신다.

본 그림은 목수의 공방에 대한 솔직한 묘사로, 성가정을 너무나 동시대적이고 평범하게 표현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후에는 중세적 주제를 가진 종교화를 어떻게 현대적이며, 또한 사실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담론을 촉발한 의미 있는 그림이다. 기적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듯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세속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성스러운 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 거리를 던져준다.

뒷벽에 걸린 사다리는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성기장 축일: 해군사관학교 신기훈 신부

◆ 교구장 동정

- 성가정 축일 미사  
    때·곳: 12월 31일(주일), 독수리 성당
- 가톨릭 의료협회 신년하례식  
    때·곳: 1월 4일(목) 11:00, 군중교구청

◆ 시무식

    때·곳: 1월 2일(화) 16: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군 복음회, 반침없는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기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